

우리의 시대의 삶  
2002 정기우품이





# 13

## 20여년 나전칠기의 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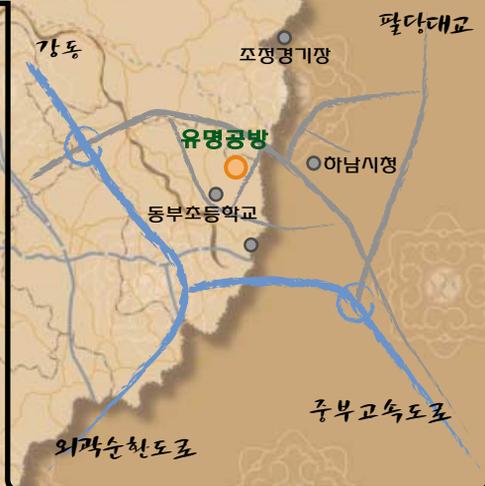
### 옷질공예 유 상 희

깊이가 있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빛 때문에 예술품에도 많이 사용되어 온 옷질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해 온 수공예로 인체에 무해하고 방부성이 뛰어나며 습기에도 강해 한번 장만하면 몇대를 물려가며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찾아가는 길

- 위치 : 하남시 신장동 443
- 대중교통  
1007번(광화문), 30-1번(성남) ⇒ 동부주유소  
30-5번(잠실) ⇒ 하남공업사
- 자가운전  
중부고속도로(하남IC) ⇒ 43번국도
- 약도



칠이란 목물인 홍송을 써서 초벌 생옷칠을 올린 후에 모시와 한지를 바르고 생칠과 토분을 섞은 골회를 사용하여 바탕을 만든 다음 옷칠을 더 올리고 문양을 자개로 상감하는 것을 말한다. 칠은 옷나무에서 채취한 생옷을 용도에 알맞게 정제하여 흑칠 이외에도 도료로 사용하는 데 옷은 방충, 방수, 방부의 효과가 있다.

옷칠을 한 그릇에 음식물을 담아두면 음식이 쉬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예로부터 목조식기에 옷칠을 사용하여 왔다.

옷칠공예의 원래 명칭은 나전칠기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시대에 약간의 나전 세공품이 선보이기 시작해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칠기란 옷칠로 기물표면을 마감하는 것을 일컬으며 나전과 칠기를 합쳐 나전칠기라 부른다. 나전칠기라 칭하지 않고 옷칠공예라 하는 이유는 일본식민지를 거치면서 유입된 카슈(화학칠)와 근대에 개발되어진 폴리사이트 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옷칠’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유상희씨가 처음으로 옷칠공예를 시작한 것은 17세이다. 그 후로부터 30여년간 옷칠공예에만 전념하여 살아온 사람으로 모질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며 오직 옷칠공예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임을 인식하고 그 맥을 이어 계승 발전시켜야겠다는 일념을 불태우고 있다.

## 생업을 위해 시작했지만 예술의 맛을 깨달아

“나전칠기는 말 그대로 주원료인 조개를 사용하여 여백의미를 살리는 옷칠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비로서 영롱한 자태가 살아납니다.” 전승공예를 20여년간 지켜오고 있는 유상희씨. 그는 지난 1994년 4월 제9회 대한민국 종합미술대전에서 전승공예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7세 때인 지난 71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관내 미사리에 있는 한 나전칠기 공예사에서 월 3천원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된 것이 나전칠기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이다. 이때부터 유씨는 고된 환경 속에서도 나전과 칠기일을 배우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전통공예인 나전칠기에 매력을 느

끼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그의 모습에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가득하다.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유씨는 한때 좌절했었으나 나전칠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 가족들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오로지 나전칠기에 자신의 혼이 담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전칠기 제작은 다른 공예품보다 몇 배의 공정이 더 필요하다. 나무를 고르고 필요한 용도의 백골을 만드는 목공 작업부터 시작하여, 백골 위에 삼베천 혹은 한지를 바르고 조개가루와 칠을 반죽하여 바른다. 그 위에 밑칠을 단단히 한 후 마르면 닦아내고 다시 칠하여 마르면 닦아내고, 이런 과정을 10여 차례 되풀이 한 후에야 종이본으로 그린 밑그림 위에 나전을 입히는 작업을 하게 된다.

한편 자개를 만들기 위해서도 전복패를 고르고 갈아낸 뒤, 줄로 썰고, 자르고, 끊어내는 등의 정성어린 준비작업을 해야한다. 그리고 자개를 칠 위의 종이본에 놓고 인두로 눌러 붙이고 다시 옷칠을 해야한다.

옷칠은 대단히 까다로운 공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리저리 붓만 놀리면 될 것처럼 보이는 옷칠은 무려 50단계를 거쳐야 하는 고행과도 같은 작업이다. 옷칠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25~30도의 온도와 60~70도의 습도를 유지해야 하고 옷칠과 사포질을 7~12번 반복하는 수작업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목기칠인 경우이다. 보다 섬세한 옷칠을 요하는 나전칠기나 공모전에 내놓을 작품의 경우에는 이보다 몇단계 더 복잡한 과정을 밟은 끝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가 옷칠을 더욱 좋아하는 것은 신비로운 효능 때문이기도 하다.

“칫솔에 옷을 바르면 병균이 기생하지 못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옷칠 밥그릇에 담은 밥을 먹으면 위장병에 안 걸려요. 옷찬 장 안에 넣어둔 음식은 쉬지도 않고요”

## 나전칠기를 사랑합니다

나전칠기는 중국의 도자기나 일본의 칠기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우위를 지키고 있는 몇 안되는 전통공예다. 그는 일본 등 해외에서 더 관심을 갖고, 외국인들에게서 오히려 그 진가를 확인받는 역설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전칠기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한 개의 나전칠기 제품이 생산되기 까지 수많은 장인들의 노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전칠기의 숙련공을 키워 내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세월이 걸립니다. 전통공예의 부흥을 위해 정부의 전략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우리 자신이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발전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전칠기의 전통적 기법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유상희 씨는 보석함, 서류함, 쌍문다리 등 소품을 주로 만들고 있으며 작품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인근 팔당호를 비롯,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며 백로, 두루미, 학등 움직이는 각종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여 작품의 소재를 개발한다.

또 야생화를 좋아하는 유씨는 산과 들녘을 돌아다니며 들국화등 한국 야생화의 사진을 촬영, 생생한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 방안에 놓여진 자연

나전칠기에 그려지는 것은 작은 자연이다. 언제나 자연을 가까이 두고자 했던 조상들의 신념이 여기에도 드러난다. 장수를 바라는 마음에서 십장생을 담기도 했고, 혹은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사군자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 혹은 좋은 금슬을 위해서 아름다운 원앙 한쌍을 넣기도 했다.

비록 힘들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예술혼을 저버리지 않고, 나전칠기 전승공예의 1인자로 우뚝 선 그는 이미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나전칠기들에 의해 힘든 세월을 보상받았는지도 모른다.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은 고독하고도 외로운 길이다. 현대에 와서는 전통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고 있지만, 힘들게 살아오던 시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박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지켜온 전통문화 이기에 그의 고집이 더욱 빛난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적 가구들에 의해 밀리고 있는 전통공예의 현실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전통공예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숨은 전통문화와 자연의 신비한 세계를 찾아 작품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그의 포부를 당당하게 밝힌다.

언제라도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훌쩍 떠나버릴 듯 자유로움 속에서 그의 고집스러운 예술혼이 반짝 비친다. 유순해 보이는 얼굴에서 굳은 의지와 결심이 보인다. 그만큼 그의 나전칠기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